

6/10(금) 시편 38-41편 그를 병상에서 불드시고

오늘 만날 시인은 질병과 죽음 앞에 놓였습니다(38:39,41편).
질병은 단순한 임상현상이 아니라 <한 개인의 경험>입니다.
질병을 계기로 시인-하나님-이웃들의 이야기가 더욱 확장되어갑니다.

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기력이 소진된 시인은(38:3-10),
<내 죄 때문이다> 인정하며 하나님의 징벌로 받아들입니다(38:1-5).
사랑하는 사람들, 친구들, 친척들도 모두 떠나가고(38:11),
원수들은 이 틈을 타 시인을 해하려 음모를 꾸밉니다(38:12).
수많은 비방에도 죄 때문이니 할 말이 없습니다(38:13-14).
그는 회개하며 하나님과의 화해를 요청합니다(38:21-22).

39편은 살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쓴 시입니다(39:4,7,10,13).
인생은 찰나이며 돌아보니 허무하고,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(39:4-6).
그의 탄식은 질병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의 실존에까지 이릅니다.
<질병은 죽음을 알려주는 사신>인 것입니다. 바르트
모든 인간이 언젠가는 가야 할 길 위에서(39:12)
시인은 남은 시간 동안의 평안을 구합니다(39:13).

환자들이 <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> 기도한다고 하여(41:4)
모든 질병이 다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징벌인 것은 아닙니다.
시인들은 때로 병의 고통보다 주변의 정죄와 비방으로 더 아픕니다(41:5-9).

질병의 고통, 회개의 과정, 죽음, 적의 비방으로
여기저기가 아픈 시인들에게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.
“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(39:7)”

나는 나의(남의) <아픔>을 통해 어떤 경험을 합니까?

- ❶ 모든 연약함을 겪으셨고 동정하시는 주님과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까? (히4:15)
- ❷ 공감과 위로, 중보를 통해 이웃과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까?

시편1권 (1-41편)

편	유형	편	유형
1	토라(지혜)시편	22	개인 탄식시
2	왕조시편	23	신뢰의 시편
3	개인 탄식시	24	찬양시
4	개인 탄식시(신뢰)	25	개인 탄식시
5	개인 탄식시	26	개인 탄식시
6	개인 탄식시(참회)	27	신뢰의 시편/개인 탄식시
7	개인 탄식시	28	개인 탄식시
8	찬양시	29	찬양시
9	개인 탄식시	30	개인 감사시
10	개인 탄식시	31	개인 탄식시
11	신뢰의 노래	32	개인 감사시(참회)
12	공동체 탄식시	33	찬양시
13	개인 탄식시	34	개인 감사시
14	개인 탄식시(=53편)	35	개인 탄식시
15	입장 기도문	36	지혜시편(탄식시/찬양)
16	신뢰의 노래	37	지혜시편
17	개인 탄식시	38	개인 탄식(참회)
18	개인 감사(왕조, 삼하22)	39	개인 탄식시
19	찬양시/ 토라(지혜)	40	개인 감사 노래/개인 탄식시
20	왕조시편	41	개인 탄식시
21	왕조시편		